

믿음의 행함으로 변화하는 교회!

교회 방문을 통해 '만민'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인도네시아 아드리안 목사와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파키스탄 하룬 길 목사의 간증.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우리가 범사에 선으로 오래 참으면 힘든 일도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넓고 큰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이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마련된 구원의 길.

"주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니~"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은 케냐 모니카 성도와 아토피 성 피부염 증세를 깨끗이 치료받은 김태호 형제의 간증.

만민뉴스

제890호 2019년 5월 2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만민'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드리안 사로인송 목사
(71세, 인도네시아 베들레헴교회)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할 뿐 아니라 교회 연합으로 아동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여러 교회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여러 교회에 복음 사역을 하며 미국의 목사님들도 돕고 있지요. 그리고 제 아내와 세 아들도 모두 목회자입니다.

◆
지난 5월 초, 저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123명의 목회자들은 감동적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부흥의 비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열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인도네시아의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민중앙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민중앙교회는 믿음의 행함과 성결함으로 영적으로 변화하는 교회이며, 교파를 초월하여 예배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은혜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기도회와 교회생활, 예배의 중요성 등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인도네시아에 널리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세미나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세계 선교 사역이 담긴 '권능' 영상을 보았는데, 무척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무슬림의 나라 파키스탄에서 성회를 개최하신 것을 보고 매우 놀랐지요. 무슬림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재록 목사님을 초청해 성회를 갖고 싶습니다.

이수진 목사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을 때에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고통받던 마르타 텐텅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아 간증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에는 영상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들도 이재록 목사님처럼 권능의 종들로 변화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기도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음 직전에서 소생했습니다!"

저는 열한 살 때 아버지 윌슨 존 길 목사님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켈리악 병으로 죽어가던 여동생 신시아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사진을 보내 기도받은 뒤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지요.

2000년에는 이재록 목사님을 강사로 수도 라호르에서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아래 사진)가 펼쳐졌습니다. 당시 저는 자원봉사자 500명의 청년들을 관리하며 성회에 동참하였지요.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파키스탄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회가 되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 다녀가신 뒤 파키스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빠르게 전파됐고, 이삭TV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지요. 이 목사님의 환자기도로 많은 사람이 영태의 축복을 받았으며, 한 무슬림 여성은 꿈속에서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고 심장병을 치료받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2018년 7월, 저의 어머니가 심장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양쪽 신장에도 이상이 있고, 폐에 물이 차 심장을 누르고 있었지요. 병명은 신부전증과 심장병이었고, 의사는 이대로



있다가는 어머니가 24시간 안에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아버지 윌슨 존 길 목사님은 이재록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를 위해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기도요청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관계자로부터 영어로 된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 영상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영상을 통해 기도받은 뒤 치료되었고, 더 이상 투석할 필요가 없으셨지요. 할렐루야!

◆
제가 열여덟 살 때 이재록 목사님께서 '2000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당시 제 학업과 장래에 대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파키스탄 성결신학교(HTS)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인터넷을 통해 만민국제신학교(MIS)를 졸업하였지요.

2018년에는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펀자브 주의 주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룬 임란 길 목사
(37세, 파키스탄 펀자브 주의회 의원)



오래 참음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범사에 선으로 참을 때는 힘든 일도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결과적으로 더 넓고 큰마음이 됩니다. 애매히 비난을 받아도 '오해가 있나 보다' 하며 어찌하든 상대의 마음을 풀어 주고자 하지요. 이런 마음이 되면 '참는다'거나 '용서한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영적인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영적인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이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에 해당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은 '모든 것에 대한 오래 참음'으로서 사랑장의 오래 참음보다 한 차원 더 높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오래 참음의 열매'란 무엇인가

1) 자신의 마음을 개조하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이 많을수록 오래 참기가 어렵습니다. 혈기, 교만, 욕심, 자기 의와 틀 등이 많으면 작은 일에도 분이 나고 감정과 서운함이 생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오래 참는 것도 점점 더 쉬워집니다. 억지로 눌러 참지 않아도 이해되고 용서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곧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 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야기도를 하는 등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지요. 좋아하던 것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 끊어 버려야 하고, 힘들다고 중간에 쉬어서는 안 되며 몇 번 해 보고 그쳐서도 안 됩니다.

죄의 근본 성질이 버려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온전히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성결을 이뤄갈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2)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성격이나 배움, 교양이 다른 사람과 지내다 보면 서로 간에 불만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달라서 화평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참을 수 있고 화평을 이룹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상대에게 맞춰 주지요.

항상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참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가 악을 행해도 인내하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해 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혼들을 전도하고 심방하며 양육할 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언젠가 변화되리라는 소망이 있기에 항상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의 씨를 심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영혼들이 변화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면 결국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마음이 되지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의인의 간구로 변화시킬 힘이 생기지요.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의 씨로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3) 하나님께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오래 참지 못하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므로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춰 응답하십니다. 또 기도 제목이 크고 중요한 것이라면 그만큼 기도의 양을 채워야 응답이 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영의 일들을 풀이 받고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전달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천사를 만날 때까지는 21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지요.

21일 동안 다니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정녕 '응답받은 줄로 믿는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는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손에 쥐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지요. 주 안에서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일로 핍박받을 때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 오래 참음으로 응답받은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의 손에 의해 갇은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셨기에 이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결국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삼 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언 행 :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꿈(창 28:13~15)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20년간의 연단을 잘 인내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복형들에 의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뿐 아니라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꿈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연단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성실과 선으로 행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 또한 사울 왕에게 쫓겨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믿음으로 인내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그릇을 온전히 갖추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가 영적인 믿음을 성장시키며 마음을 더 깊고 넓게 성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히 10:3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과정에는 분명 수고와 눈물과 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공의의 법칙에 따라 수확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천 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독생자를 내어 주는 아픔도 참으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고, 보혜사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경작의 세월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마음껏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Q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나요?

A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이후에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을 얻으리니”(롬 10:9) 말씀한 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양심 곧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양심이 율법이 되어 그 행위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양심심판

로마서 2장 14~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합니다. 곧 ‘양심’이 ‘율법’이 되게 하고, 그 행위에 따라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양심심판’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나, 신약시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반면 양심에서 악인 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이는 율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윗음부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사랑의 섭리

그러나 양심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의 대기 장소인 ‘윗음부’로 가는데 이와 상반된 지옥의 대기 장소는 아랫음부입니다. 음부는 분명히 존재하는 영의 세계로, 성경 곳곳에도 나오지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윗음부에 가서서 복음을 전

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5장 28~29절에 “...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한 대로 양심심판으로 윗음부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천국의 처소와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양심심판을 받습니다. 육은 무덤에 장사되고 구원받은 만한 양심을 가진 영혼은 윗음부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심판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도 그 양심의 선한 정도, 의로운

정도에 따라 천국의 영광도 구분해 주십니다. 사랑과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심판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세 전부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영원한 천국에서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증세가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김태호 형제 (19세, 고3선교회)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이 너무 심했습니다. 생후 2주째부터 전신에 태열이 있었는데,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면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머리는 딱지로 가득했고 귀속에서도 진물이 흘러나오니 손과 발을 제외하고는 온몸이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권위 있는 피부과 의사가 “제가 지금까지 본 환자 중에 제일 심각하네요”라고 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너무 아렸기에 약을 쓸 수 없었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여 부모님께서는 속수무책으로 그저 좋아지기만을 바라셨다고 합니다.

2002년 7월, 그 당시 저희 가족은 대전만민교회에 다녔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강사로 ‘공주만민교회 1일 축복성회가 열려 그곳에 갔습니다. 저는 그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 아토피성 피부염이 호전되기 시작해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수영장을 다녀오거나 운동을 하면 때때로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뒤쪽에 아토피성 피부염 증세가 올라온 했지요. 가려움을 참을 수 없어 긁다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겨 피가 났고, 겨울에는 각질이 떨어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들어와 은사집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온전하게 치료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2월 은사집회 시에는 직접 제가 환자접수를 하고, 각종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힘쓰며 다니엘철야에도 참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3월 은사집회도 마찬가지로 사모함 가운데 참석하여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수진 목사님의 전체를 위한 기도를 받았지요.

그 뒤 4월 초,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피부가 더 이상 가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팔꿈치 안쪽 피부에는 거칠고 화상 입은 것처럼 얼룩덜룩한 흉터가 있었는데, 놀라게도 보통 피부처럼 매끄러워져 몇 번이고 만져보았지요. 할렐루야!

이뿐 아니라 매우 심각했던 얼굴 여드름과 눈가의 비립종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8년 10월 7일, 조오지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은사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처음 찾은 교회 분위기는 매우 은혜로웠고,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많은 사람이 치료되는 것을 보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지요.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과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오른쪽 발목의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오른쪽 발목에 종양이 있는데 골수로 전이될 수 있고 각종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있으니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여 수술이 10월 중순으로 잡혔지요.

저는 어머니의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돼서 담임 정명호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프랑스에 살고 계시므로 대신 어머니의 사진 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셨지요. 그리고 난 뒤 수술 당일, 어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받으셨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너무 놀라 혹시 잘못 검사가 됐을까 싶어 검사를 세 번이나 다시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치료를 체험한 저는 연락이 두절된 여동생을 위해서도 기도를 받았습니다. 동생은 16년 전 영국에 갔는데, 몇 년 전부터 소식이 끊겨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때도 동생의 사진 위에 정명호 목사님이 손수건 기도를 해 주셨는데, 올해 1월 동생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잘 지낸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지요.

“주님을 만나니 행복하고 축복이 넘쳐요”



모니카 완지쿠 성도 (29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이 외에도 네 살 난 딸은 왼쪽 발목이 부어 통증으로 잘 걷거나 뛰지 못했는데,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통증이 사라지고 부기가 빠져 잘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식수 문제로 인해 복통이와 움직이지도 못하고 3일 동안 학교도 가지 못했는데, 기도받은 뒤에는 통증이 사라져 그 다음날 바로 학교에 갈 수 있었지요. 저도 기도받은 후 이전보다 일도 잘하고 고객도 많이 늘어 일터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8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을 주변에 열심히 전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나이로비만민교회 주일 대예배와 새신자 초청 행사 때 제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만민을 만나 주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과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4173-451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30-6 ☎055)247-8891~2, 010-4167-6580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안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935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